

# 신왕국 이집트의 신전 도시



강사: **곽민수** 소장

이집트 고고학자. 현재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이후 영국 런던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각각 고고학과 이집트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더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본 투트모스 3세의 과거 인식과 개인 정체성>, <신왕국 이집트의 누비아 식민화와 신전 도시> 등의 논문을 썼으며, <고대 이집트 해부 도감> 등의 서적을 감수하였다. 현재는 여러 매체에 기고와 방송 출연, 다양한 대중 강연을 통해서 한국 내 이집트학의 대중적 저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와 누비아 사이에는 선왕조 시대(기원전 5,500-3,100년 경)부터 밀접한 상호관계가 형성되었다. 두 지역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양 지역에서 일어나 문화 과정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양 지역 사이의 주도권은 거의 항상 이집트 쪽이 갖고 있었다. 이집트의 관점에서 누비아는 이집트 사회에서 위신제로 사용될 수 있는 사치품들의 산지였으며, 따라서 이집트는 지속적으로 누비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누비아는 비교적 독립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집트의 경우에도 누비아를 직접 통치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제 2 중간기(기원전 1650-1550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실했던 누비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한 신왕국 이집트는 누비아를 완전히 이집트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왕국 시대(기원전 2055-1650년) 동안에 사용되었던 누비아 지역의 이집트 요새들은 점차 '신전 도시'로 그 역할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신전 도시는 신왕국 이전 시대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적 현상은 경제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인도 존재하는 것 같다. 누비아의 편입은 이집트의 우주적 질서, 즉 '마아트'의 영역 내로 누비아가 포섭된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은 경제적 동기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이집트가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고안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신전 도시라는 물리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